

전국체전 · 장애인체전 조직위 출범

송 지사 “전북 · 새만금 알리기와 더불어 평창 동계올림픽 감동 있는 화합의 장 되도록”
대회 준비단계부터 지원방안 협의 · 홍보 등 분야별 자문역할 수행 유관기관 간 협력 추진

제99회 전국체육대회와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전북이 하나로 뭉쳤다.
2018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27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송 지사도 전주시와 전북도 주요 기관 단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창립총회는 준비상황 보고, 성공 퍼포먼스, 성공 개최 방안 의견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조직위원장은

송 지사는 “2018년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 체전을 통해 전북과 새만금을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평창 동계 올림픽’의 감동을 있는 스포츠 문화축제, 국민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완벽한 대회를 준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조직위원회는 양대 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자문기구로서, 국회의원, 군경, 언론방송, 종교, 경제금융, 문화예술, 농축수산, 체육 등 전라북도 유관기관 단장 등 조직위원장(전북도지사)을 포함해 121명으로 구성됐다.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이해서 선수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문화관광 체전’을 비전으로 대회준비 단계부터 지원방안 협의, 홍보활동 등 분야별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회 추진을 위해 1월 17부 68팀으로 집행위원회를, 시 군별로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유관기관간 상호협력력을 추진하고, 분야별로 실행대책을 마련해 체전 준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그동안 전북도는 전국체전준비단을, 체육회는 TF팀을, 익산시는 전국체전담당관을 구성하여 체전 기본계획 수립, 상징물 개발 및 홈페이지 구축, 개최행사 행사 연출, 경기장 시

설 개보수 등 양대 체전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왔다.
전북도는 조직위원회 창립을 시작으로 전북 대도약의 기회가 될 이번 체전을 통해 ‘2023 새만금 세계잡버리’의 개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선수단과 관객, 장애인과 비장애인, 전북도민과 국민이 화합하고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대회운영, 손님맞이, 관람안내, 전라북도 홍보 등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10월 12일부터 7일 동안 익산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는 47개 종목에 3만여명의 선수가 참가하며, 10월 25일부터 5일간 개최되는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는 26개 종목에 8,5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취업연계형 특성화 과정 주관대학 선정

도내 중기 인력난 해결 돕는다

군산대 · 원광대 · 전주대 등 3곳

전북도는 대학생이 취업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전북도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의 ‘2018년도 개설 취업연계형 특성화 과정’에 참여할 주관대학으로 군산대, 원광대, 전주대 3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은 현장중심의 융복합산업 전문인력의 필요에 따라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특성화 과정을 개발하여 ‘기업과 대학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하고, 기업수요에 맞는 전문산업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겪는 전북

도내 ‘기업의 전문 인력 애로’ 해결을 위해 2012년부터 지원을 시작한 사업이다.
특히 특성화 과정에 참여한 학생의 경우 80% 이상이 전북도내 기업에 취업하여 전문산업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번 선정 공모에 전북도 3개 대학 13개 과정을 신청하여 선정평가위원회의 발표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12개 과정이 선정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평가를 통해 발굴된 우수 과정에 대한 사례를 모델로 하여 전북형 취업연계 산학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27일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과 송삼준 부의장 등 지역 정치권,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개헌 전주의’ 출범식을 가졌다.

“지방분권, 새로운 시대적 소명... 더이상 거스를 수 없다”

전주시민들은 대한민국 자치분권 실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 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 지방분권개헌이 필요하다는 한 목소리를 냈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27일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과 송삼준 부의장 등 지역 정치권,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개헌 전주의’ 출범식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전주시민들의 개헌 의지를 모으고 개헌을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분권개헌 전주의 출범 결의문’을 통해 “전주시는 120여 년 전 전주의약을 맺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꽃피운 뿌린 지역

전주시-전주시의회, 지방분권개헌에 ‘한 목소리’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실현 등 정치권에 촉구

이며 민정기관인 집값의 흥분산이 위치해 있던 유서 깊은 민주주의의 도시”라며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적 소명이며 국민의 염원을 담은 지방분권개헌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국가와 지방의 동시 발전과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현 △국민의 자유 및 권리 확대, 자치기분권 명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 4대 지방자치권 규정 △중앙·지방정부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 분담 및 합리적인 사무 재배분 등을 정부와 정치

권에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천민인 서명 운동과 함께 동학농민운동의 평등사상을 표현한 사발통문 형식의 서명록 작성 퍼포먼스를 통해 지방분권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고 어렵기만 한 지방분권의 개념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이해를 돕기 위한 시민특강도 마련했다.
이제는 수원시장연구원장은 ‘왜 지방분권개헌을 요구하는가’를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지방분권개헌의 목적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이 행복한 지역공동체 실현에 있으며 지도자 정치에서 시민의 정치로 전

환해야 가능하다”라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개헌의 주체는 지방이고 핵심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역량”이라고 조언했다.
김명지 전주시의회장은 “지역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해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주민이 행복한 국가를 위해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국가의 시대가 가고 도시의 시대, 시민의 시대가 오고 있다.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에 많은 권한을 줄 때 사회적 현안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와 시민들의 관점에서 논의돼야 하며 정부와 정치권에 이러한 개헌 의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전주시민 의의가 결집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청 공무원들, 자전거 이용 붐 앞장

내달부터 자전거 출·퇴근 운동

전주시청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친환경 교통 수단인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문화를 만든다.
전주시는 올해 생활 속 교통 수단으로 자전거 타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부터 자전거 타기를 실천하는 자전거 출·퇴근 운동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출·퇴근 운동에는 △평소 간헐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해온 직원 △출근 거리가 5km 이내에 거주하는 직원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 자전거를 이용해 운동을 하겠다는 직원 등 시청 전 직원의 10%인 220여 명이 자전거 출·퇴근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자전거 출·퇴근 운동에 참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3월중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 안전모와 장갑, 경광 등 안전 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자전거 출근 포인트제를 운영, 지속적으로 자전거 타기를 실천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못타지만 배우려는 직원들에게는 기초 및 정비 교육을 통해 자전거 출퇴근 문화를 점차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복지관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전거 행진도 3월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송삼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자전거는 단거리 이동에 최적화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 수단으로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로 인해 늘어나는 교통 체증과 주차난, 불법주·정차 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전거 이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전주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자전거 출·퇴근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전거 타는 문화가 정착되고 전주가 자전거 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일자리 예산 신속집행 총력

도, GM 사태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 일환
대상액 4조6253억원 중 3조65억원 상반기 내

전북도는 군산 GM사태로 인한 지역 경제 위기 상황 극복과 침체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27일, 김승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2018년 재정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효과성 분석’ 용역 결과에 따르면 신속집행 추진이 평균경제성장률 3% 중 0.3%p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군산 GM 협력업체들이 입주한 6개 시군을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상반기 중 신속히 지원하여 전북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즉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는 지난해 목표 58%보다 7%p 상향 조정된 65%로 정하여 보다 공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실국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신속집행 대상액 4조 6,253억원 중 3조 65억원을 상반기 내에 집행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특히 1분기에는 일자리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사업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직접일자리사업,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 1,168억원 규모로 3월 중 최대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비 교부상황 사전 파악 및 미교부 사업비 중앙부처 건의, 자금부족 및 사전절차 이행 등 애로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전략적이고 선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승일 도 행정부지사는 “작년 군산 조순소 가동중단에 이어 최근 GM사태 등으로 우리 지역경제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속집행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이므로 사명감을 가지고 총력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합리적 재원배분, 사전절차 조기이행, 이월·불용예산 최소화 등 재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바 있다. /김진성 기자

전주시, 시민참여 에너지전환 포럼 열어

전주시는 27일 공무원과 시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에너지전환시선포럼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올해 시민들이 직접 투자로 참여하는 ‘시민햇빛발전소’ 건립을 적극 추진, 시민들이 에너지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시와 전주에너지전환시민포럼은 그동안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과 모든 과정에서 시민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에너지 자립 도시 기틀을 마련, 시민네트워크 운영을 강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실현을 위해 힘써왔다.

이 뿐만 아니라 시는 기존 정부의 중앙 집권적인 에너지 정책에서 지자체 중심의 에너지 분권과 자립의 토대를 마련해 기후 변화와 에너지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전주를 만들기 위한 에너지 자립 운동인 에너지 디자인 3040을 펼치고 있다. 시와 시민들이 함께 만든 지역 에너지 계획인 에너지 디자인 3040은 오는 2025년까지 에너지 자립률과 전력 자립률을 각각 30%와 4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전주시 지역 에너지 계획은 행정과 시민의 협력으로 만들어졌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자립 도시 전주 실현을 위해 더욱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약수하는 남과 북 27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과 북측 수석대표인 황충성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장이 북한의 평창동계패럴림픽 참가 논의 실무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제공>

전주자봉센터, 재능봉사자 양성 특화교육 참여자 모집

(페이스페인팅&네일아트)로 총 5개의 교육 과정이 개설된다.
자원봉사 특화 교육생은 교육 수업과 현장 연계 봉사 활동을 병행하며 교육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재

능 나눔에 앞장서도록 도울 계획이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매년 2회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을

통해 양성된 봉사자는 배운 재능을 바탕으로 전주지역 사회복지 시설 및 요양병원·문화 행사 등에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원봉사 특화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063-280-4018)로 문의하면 된다. /채규남 기자

(사)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3월 23일까지 재능봉사자 양성을 위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화 교육은 각 과목별 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 2회 2시간씩 총 15회 진행되며 이·미용, 발마사지, 서클요법, 임지건강법, 뷰티플러스스